

『滄浪詩話』의 ‘識’과 ‘別材·別趣’ 小考

김 선 희

1. 서론
2. 「詩辨」의 ‘識’과 ‘別材·別趣’
 - 1) ‘識’
 - 2) ‘別材·別趣’
3. ‘識’과 ‘別材·別趣’를 통해 본 李白과 杜甫의 시
4. 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

古代로부터 출현한 중국 詩歌작품들과 더불어 詩話도 三代부터 先秦시기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 詩話는 詩 속에서 자신의 詩觀을 단편적으로 피력하기도 하고, 詩에 대한 평론을 하기도 하며 詩에 대한 이론과 비평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詩話의 발단은 위진남북조시대 鍾嶸의 『詩品』이라고 할 수 있다.²⁾ 鍾嶸의 『詩品』은 시의 연원을 추적하고 前代 시인들의 시에 대한 품평과 사승관계의 고찰 등 다양한 시학 이론들을 담고 있다.

중국 고전 시가의 황금기는 唐·宋代이다. 唐代에는 詩論은 없었지만 詩의 전성기였고, 宋代에는 詩論이 활발했지만 詩는 唐詩에 미치지 못한다. 宋代 詩話는 歐陽修의 『六一詩話』를 기점으로 많은 詩話들이 등장하였다. 歐陽修가 『六一詩話』에서 詩話에 대한 정의를 일종의 「閑談거리」라고 했을 정도로³⁾ 초기의 詩話는 자유로운 閑談의 성격을 띠었다. 그 이후 嚴羽의 『滄浪詩話』에 이르러서야 전문적인 詩에 관한 議論을 담게 되었다.

- 1) 청대의 何文煥은 『歷代詩話·序』에서 “시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賡歌가 『虞書』에 기록되어 있고, 六義가 옛 「모시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공자·맹자의 언론은 특별히 심원한 뜻을 설명하였고, 『춘추』의 賦答은 모두 斷章을 지은 것이다. 삼대에 이미 존재했었다.(詩話於何昉乎? 賡歌紀於『虞書』, 六義詳於古「序」, 孔孟論言, 別申遠旨, 『春秋』賦答, 都屬斷章. 三代尙已.)”라고 하여 시화의 연원을 三代로 보고 있다.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p. 3.
- 2) 청대의 章學誠은 『文史通義』에서 “시화의 근원은 鍾嶸의 『詩品』에 근본이 있다.(詩話之源, 本於鍾嶸 詩品)”이라 했다. 그리고 何文煥도 종영의 시품을 시화 그 자체로 인식했으며 『역대시화』에서 시화의 기원은 삼대에 있다고 했지만 본문 편집에 『시품』을 최초의 시화로 보고 있다. 강창수, 「송대반강서시화의 시론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년, pp. 10-11. 참고.
- 3) 歐陽修는 『六一詩話』에서 “내가 여음에 퇴거해 있으면서, 모아 한담 거리로 삼은 것들이다.(居士退去汝陰而集以資閑談也.)”라고 했다.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p.264.

『滄浪詩話』는 1만 餘 字에 불과하지만, 前代의 무수한 시에 대한 분석과 비평이 크게 성행했던 송대의 시화들 중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嚴羽의 시 解釋能力과 시작법에 대한 독특한 그의 견해 때문이다. 前代의 시에 대한 분석과 비평 뿐 만 아니라 당시 시단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시의 본질에 대해 간과하고 있던 당시 문인들에게 詩情의 본질을 인식하고 취득하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嚴羽가 『滄浪詩話』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詩道在妙悟’라고 하면서 禪과 문학을 결합하여 ‘以禪喻詩’로 구체화했다. 둘째, 詩作의 妙悟 경지는 ‘識’과 ‘別材·別趣’의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盛唐詩를 추앙하고 높였다. 그는 성당시인들 가운데 李白과 杜甫를 入神의 경지에 도달한 시인으로 여겼다. 嚴羽는 특히 「詩評」과 「考證」편에서도 李白과 杜甫를 분석하며 시의 본질을 말하고자 했으며, 李白과 杜甫의 시를 당시의 사람들이 경학을 공부하듯 그들의 시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嚴羽가 『滄浪詩話』를 통해 언급했던 주장들은 송대 魏慶之의 『詩人玉屑』, 명대는 李夢陽, 청대 王士禎 등에게 영향을 주면서 역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의 『창랑시화』는 가장 완벽한 문학이론 비평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주장은 추앙과 비평을 동시에 받으며 당시 문인들과 시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본 고찰에서는 李白과 杜甫의 詩들을 중심으로 嚴羽가 『滄浪詩話』 「詩辨」에서 강조한 ‘識’과 ‘別材·別趣’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詩辨」의 ‘識’과 ‘別材·別趣’

1) ‘識’

『滄浪詩話』는 「詩辨」·「詩體」·「詩法」·「詩評」·「考證」이렇게 5편과 부록으로 실린 「答出繼叔臨安吳景仙書」로 구성되어 있다.⁴⁾ 그 중 「詩辨」은 가장 精彩로운 부분은 책 전체의 總綱의 형태를 띤 原理論이다.⁵⁾ 嚴羽는 「詩辨」의 제일 첫 부분에 ‘以識爲主’라는 언급을 하였다. 여기에서 ‘識’은 識見으로,⁶⁾ ‘識見’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엄우가 말하는 식견은 시를 배우는 첫 단계로써 학식을 배우는 것을 말한 것이

4) 『창랑시화』는 宋 理宗 紹定 元年(1228년) 경에 완성되었고, 度宗 咸淳연간에 관각되었다. 지금 전하는 단행본으로는 『百川學海』본, 『津逮秘書』본, 『歷代詩話』본, 『詩函樓瑣』본, 『詩觸業書』본, 『清芬堂業書』본, 『秘策業書』본, 『說郛』본, 『寶顏堂秘笈』본, 『詩法萃編』본, 『談藝珠業』본, 『螢雪軒業』본, 『宋詩話七種』본, 『學詩津逮』본 등이 있다. 각 판본들은 대체로 같은데 끝에 「答出繼叔臨安吳景仙書」가 빠진 것도 있다. 『滄浪詩話』의 주석본은 4종류가 있는데 胡鑒의 『滄浪詩話注』, 王瑋慶의 『滄浪詩話補注』, 胡才甫의 『滄浪詩話箋注』, 郭紹虞의 『滄浪詩話校釋』이다.

5) 『창랑시화』의 5편중 「詩體」는 歷代詩歌體製의 발전에 대한 평론으로 體裁論이고, 「詩法」은 詩의 技法과 法度 즉 方法論에 관한 것이며, 「詩評」은 古今詩歌와 詩人에 대한 評論이며, 「考證」은 시가창작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分析과 考證을 논한 것이다. 林承堉, 『창랑시화』 초판, 『중국문학연구』 1989년, p.160. 참고.

6) ‘識’은 ‘識力’이라는 이해아래 감상력·변별력과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한 ‘識見’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우정, 『엄우시론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p.172. 참조.

아니다. 당시 책을 통해 얻은 典故의 구사와, 자구를 맞추기 위한 措辭를 중시하며 시의 본질을 표현해 내지 못했던 진부한 詩들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엄우는 黃庭堅 이후의 강서시파의 시들과 작법에 많이 나타났던 당시 시단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가 의 주장은 시의 본질을 체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학습 방법이라고 제기 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은 「詩辨」의 내용이다.

무릇 시를 배우고자 하는 이는 식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배움의 시작을 올바르게 하고, 뜻을 높이 세워야 할 것이다. 漢、魏、晉、盛唐을 스승으로 삼고, 開元、天寶이후의 인물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스스로 움츠리면 열등한 詩魔가 가슴 깊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뜻을 세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가고자 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면, 좀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가 있지만, 가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갈수록 멀어진다. 이는 배움의 시작이 올바르게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上의 것을 배우면 겨우 中을 얻을 수 있고, 中을 배우면 그 下가 된다. 또 이르기 위해 中을 넘어서면 그런 대로 남에게 전할 수는 있으나 스승과 엇비슷하면 스승의 성과를 반감 시킨다. 학습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우선 『楚辭』를 반드시 숙독하고 조석으로 읊조려 이를 근본으로 삼고, 『고시 19수』를 읽고 악부 네 편과 李陵과 蘇武 및 漢、魏의 오언시를 숙독하고 이백과 두보의 시집을 배게 머리에 두고 보면서 마치 요즘 사람들이 경학을 연구하듯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盛唐의 유명 작가들을 널리 받아들여 가슴속에 곧박히기를 오랫동안 하면 저절로 깨달음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비록 배움이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여도 바른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이는 곧 정수로부터 아래로 공부해 나감을 뜻하며 이를 일러 ‘向上一路’ ‘直截根源’ ‘頓門’ 또는 ‘單刀直入’이라고 한다.

夫學詩者以識爲主：入門須正，立志須高；以漢、魏、晉、盛唐爲師，不作開元、天寶以下人物。若自退屈，即有下劣詩魔入其肺腑之間；由立志之不高也。行有未至，可加工力；路頭一差，愈驚愈遠；由入門之不正也。故曰：學其上，僅得其中；學其中，斯爲下矣。又曰：見過於師，僅堪傳授；見與師齊，減師半德也。工夫須從上做下，不可從下做上。先須熟讀『楚辭』，朝夕諷詠，以爲之本；及讀『古詩十九首』，樂府四篇，李陵、蘇武、漢、魏五言皆須熟讀，即以李、杜二集枕藉觀之，如今人之治經，然後博取盛唐名家，醞釀胸中，久之自然悟入。雖學之不至，亦不失正路。此乃是從頂(寧頁)上做來，謂之向上一路，謂之直截根源，謂之頓門，謂之單刀直入也。⁷⁾

嚴羽는 ‘識見’을 얻기 위한 배움의 시작은 ‘뜻을 높이 세우는데’ 있고, 배움의 단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옛것을 배움에 있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과 감상력 등 내면의 수양을 통해 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禪에서 말하는 ‘悟’의 경지로 수양에 의해 시의 본질을 체득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하고자 했다. 嚴羽는 ‘식견’을 얻기 위해 前代 시인들의 문장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7) 嚴羽著, 郭紹虞校釋, 『滄浪詩話校釋』, 人民文化出版社, 2006년, p.1

주장했는데, 郭紹虞는 『창랑시화교석』에서 엄우가 ‘식견’을 얻기 위해 옛 것 배우는 것을 중시한 것은 당시의 여러 문인들이 제시했던 견해라고 하면서 呂居仁, 황정견, 주희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엄우와 비슷한 배움의 출발점을 제시한 呂居仁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시를 배우는 것은 모름지기 삼백편과 초사, 한·위의 시를 위주로 해야만 고인의 좋은 것을 보게 된다.

學詩須以三百篇楚辭及漢魏間人詩爲主，方見古人好處⁸⁾

당시 강서시파의 한 사람인 呂居仁의 『童蒙詩訓』에서 말한 내용이다. 위의 문장에서 呂居仁은 시를 배움에 있어서, 엄우가 第一義라고 분류했던 초사 한위의 시에 시경을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그걸 위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嚴羽가 말한 시를 배우는 출발점을 「楚辭」로부터 해야 한다는 것과 呂居仁이 『詩經』을 언급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 두 사람이 출발점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엄우가 당시 문인들이 ‘理’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영향으로 前代의 詩 읽는 것 보다 경학을 배우고 지식과 개념을 드러내는 문사만을 중시하는 경향에 대한 반대적인 견해 때문이다. 즉 엄우는 『詩經』을 경학으로 분류하고, 그 시작을 「楚辭」로 인식했다. 그리고 엄우가 배움의 출발점을 초사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시의 본질을 체득하지 않고, 시의 이미지를 일반 개념화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개인의 주관적인 언어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형식과 수사법에 맞추어 나타내려는 추세에 대한 비판적 의미도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시어를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하여 얻어진 지식만을 의지하여 典故나 논리를 시어 속에서 전개하게 되면 詩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진부해진다.⁹⁾ 때문에 그는 당시의 “산문으로 시를 짓고, 재능과 학식으로 시를 짓고, 의논으로 시를 짓는(以文字爲詩，以才學爲詩，以議論爲詩)”¹⁰⁾ 것을 비판하면서, 시를 배우려면 그 배움을 올바르게 하고 뜻을 높이 세워 식견을 갖추라고 강조한 것이다. 즉 ‘以識爲主’의 주장은 前代의 시들을 통해 옛것의 풍격을 익혀 시에 대한 식견을 배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학을 연구하듯이 두보와 이백의 시집을 살펴 그들의 식견을 배우라고 제시했다.¹¹⁾

그래서 엄우는 「詩辨」에서 ‘식견’을 중시하며 선인의 문학세계를 통해 얻어진 식견이 있어야 만이 예술적 흥취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단계를 밟아야 ‘向上一路’하여 결국 ‘頓門’에 이르게 되어 묘오를 터득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8) 嚴羽著, 郭紹虞校釋, 앞의책 p.4.

9) 윤상림, 「문학과 선사상」, 동양고전연구 제 4집 1995년 pp. 142-143. 참고.

10) 嚴羽著, 郭紹虞校釋, 위의책, p.26

11) 郭紹虞의 『滄浪詩話校釋』에 의하면 嚴羽의 이설은 주희에게서 나온 것으로 “시를 지음에 우선 이백, 두보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선비들이 기본 경서를 연구하듯, 근본을 세우고 난 후에야 순차적으로 소식 황정경 그리고 제가들의 시를 읽을 수가 있다.(作詩先用看李杜，如士人治本經然。本既立，次第方可看蘇黃以次諸家詩。)”라는 주희의 화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시론의 주요 취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체계화 구체화 했다고 한다. 嚴羽著, 郭紹虞校釋, 위의책, p.5

2) ‘別材·別趣’

엄우는 「詩辨」에서의 ‘識’외에 ‘別材·別趣’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別材란 시인이 시가 창작을 하는데 갖추어야 할 특수한 재능인데 그런 예술 창작활동은 일반 독서나 이치의 추구와는 다른 개념을 지닌다. 別趣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意趣 또는 情趣로 시가 창작 중에서 표현된 일종의 느낌을 일으키는 興趣이다. 앞에서 말한 ‘識’은 어떻게 시를 배워야 하는가를 말했다면, ‘別材·別趣’는 시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가 말한 ‘別材·別趣’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詩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책과는 관계가 없고, 詩에 별도의 흥취가 있으니 이치를 터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이치를 많이 탐구하지 않으면, 시의 지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른바 이치의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언어의 통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시라는 것은 사람의 성정을 읊는 것이다. 성당의 여러 시인들은 오로지 흥취에 주력하여, 그들의 시는 영양이 뿔을 나무에 걸은 것처럼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 시의 절묘함은 透徹 玲瓏하지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다. 마치 공중의 소리와 같고 외형 속의 색깔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허상과도 같아서 언어는 다했어도 그 의미는 다함이 없다. 근래 여러 시인들은 기이하고 독특한 이해를 가져 마침내는 산문으로 시를 짓고 재능과 학식으로 시를 짓고, 의논으로 시를 짓곤 한다. 어찌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겠느냐는 결국 옛 사람들의 시가 되지는 못했다. 대체로 一唱三歎의 음에는 부족한 바가 있었다. 게다가 그 작품들은 대부분 고사를 사용하는데 힘쓰고, 흥취는 불문에 붙이며 사용된 글자에는 반드시 내력이 있고, 압운에는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해서 읽어보아도 어디에 가 닿는지를 모르게 된다. 그 말류 가운데 심한 것들은 시끄럽게 외치고 성난 기운을 펼쳐내어 정말로 충직하고 돈후한 시풍에 어긋나서 거의 욕지거리로 시를 짓는다. 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가히 하나의 재앙이라 하겠다.

夫詩有別材，非關書也；詩有別趣，非關理也。然非多讀書、多窮理，則不能極其至，所謂不涉理路、不落言筌者，上也。詩者，吟詠情性也。盛唐諸人惟在興趣，羚羊掛角，無跡可求。故其妙處，透徹玲瓏，不可湊泊，如空中之音，相中之色，水中之月，鏡中之象，言有盡而意無窮。近代諸公，乃作奇特解會，遂以文字爲詩，以才學爲詩，以議論爲詩。夫豈不工？終非古人之詩也。蓋於一唱三歎之音，有所歉焉。且其作多務使事，不問興致，用字必有來歷，押韻必有出處，讀之反覆終篇，不知着到何在。其末流甚者，叫噪怒張，殊乖忠厚之風，殆以罵詈爲詩。詩而至此，可謂一厄也¹²⁾

嚴羽는 ‘무릇 시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책과는 관계가 없고, 시에 별도의 흥취가 있으니 이치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책을 많이 읽고 이치

12) 嚴羽著, 郭紹虞校釋, 앞의책 p.26.

를 많이 탐구하지 않으면 시의 지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시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식견’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이치탐구가 필요하며, 지극한 시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책과 이치에 얽매이지 않는 ‘別材·別趣’를 담아내야 함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창작한 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시는 학문과는 독립된 것이고 학문이나 이치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前代인들이 詩의 외형적인 언사에 얽매어 학습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詩作에 있어서 언어의 통발에 빠지지 않으면서 작자의 흥취를 표현하는 것을 ‘別材·別趣’라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책을 학문으로 인식했던 문인들에게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다음은 명대 黃道周의 「書雙荷庵詩後」이다.

이 詩道는 재능과 식견에 관련되는 것이며, 재능과 식견은 학문에서 나온다. 그러나 창량은 시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학문과는 무관하다고 여겼다. 이는 정말 터없는 말로써 세상의 후인들을 기만하여, 기존의 시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禁體詩나, 平仄과 韻을 고려하지 않는 打油詩, 원래 글자를 바꿔 재미로 시를 짓는 釘鉸詩를 짓게 했을 뿐이다.

此道關才關識. 才識又生於學, 而嚴滄浪以爲詩有別才非關學也. 此眞瞽說以欺誑天下後生, 歸於白戰打油釘鉸而已¹³⁾

상기의 문장에서 黃道周는 시의 재능이나 식견의 근본은 학문이라고 여겼기에, 시가 학문이나 이론과 무관하다는 엄우의 논지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嚴羽의 ‘別才非關學’은 詩作에 있어서 학문이 불필요하다는 의도가 아니다. 그는 학문을 하되 시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는 참된 식견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즉 어떻게 독서를 하고 학문을 作詩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 학문이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엄우는 두보의 시를 당시 사람들이 경학을 공부하듯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보가 그의 시에서 “만권의 책을 독파하고 붓을 드니 마치 신들린 듯하다.¹⁴⁾”라고 했는데, 두보 역시 학문의 수양을 중시하며 만권의 책을 독파한 후에야 비로소 찌꺼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식견 없이 학문에만 의지한 作詩는 故事成語나 典故만을 나열하면서 미사어구로 점철된 문장을 구사하면 옛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엄우의 주장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엄우가 추앙했던 이백과 두보는 학문의 수양을 중시하였지만 언어의 통발에 빠지지 않으면서 興趣를 詩 속에 담아내고 있어 별재와 별취가 있다고 이른다. 그러나 당대인들은 前代인들의 시어에서 표현되는 ‘言外之意’를 인식하지 못하고 文辭에만

13) 嚴羽著, 郭紹虞校釋, 앞의책 p. 33.

14) 「奉贈韋左丞丈」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 杜甫著, 이병주 編校, 『杜詩諺解』, 集文堂, 1982. p. 28.

빠져있었기 때문에 別才와 別趣를 말한 것이다.

독서를 즐기면서도 참된 식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분석과 감별을 하지 않으면 別才와 別趣를 시어 속에서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독서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독서법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독서를 중시했고, 식견을 갖춘 후 독서를 통해 별재와 별취를 얻었기 때문에 시에 있어서 흥취를 담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에서 학문을 과시하려는 作詩法에 있어서는 독서가 오히려 진부한 시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우는 識과 別才와 別趣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엄우가 말한 특별한 재능과 학문에 대해 청대의 張宗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엄우가 말한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성정이 기탁하는 바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고금의 문인학사들 가운데 재능과 학문이 뛰어나 많은 서적에 두루 통달했음에도 시를 지은 것이 거의 한 글자도 후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는 性情이 없기 때문이다.

余則以嚴氏所謂別材別趣者，正謂眞性情所寄也。試觀古今來文人學士，往往有鴻才碩學，博通墳典，而於吟詠之事，概乎無一字之見於後，所性不存故也。¹⁵⁾

張宗泰는 엄우가 말한 ‘시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서적과는 관련이 없다(詩有別材，非關書也)’¹⁶⁾는 말의 의미를 ‘진실한 性情’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⁷⁾ 이점은 엄우가 ‘식견’을 강조하며 시를 배우는 방법에 대한 논지를 펼치면서 당시 시단의 폐단, 즉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학문만을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別材·別趣는 학문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엄우의 別趣와 別材는 학문을 폐기하거나 이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에 구애받거나 이치에 빠져서도 안 됨을 말하고 있다. 엄우의 생각은 학문을 통해 참된 식견을 깨닫고 별재와 별취를 얻어 자신의 진실한 性情을 풀어내야 만이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당시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엄우는 ‘성당의 여러 시인들은 오로지 흥취에 주력하였고, 그들의 시는 영양이 뿔을 나무에 걸은 것처럼 자취를 찾을 수 없다.(盛唐諸人惟在興趣，羚羊掛角，無跡可求。)’¹⁸⁾라고 했는데, 盛唐詩의 공통되는 특징을 興趣로 보았다. 여기에서 興趣는 ‘別材·別趣’에 의한 것으로 감흥을 자아내는 言外의 意趣이다. 영양의 비유를 들어 영양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고 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진실한 性情을 언어에 담아 흥취를 따라 손이 가는 데로 쓰는 것이 엄우가 추구하는 시이다.

15) 嚴羽著，郭紹虞校釋， 앞의책 p. 35.

16) 嚴羽著，郭紹虞校釋， 앞의책 p. 26.

17) 곽소우는 崔旭의 『念堂詩話』，徐經의 『雅歌堂贅坪詩話』권2，宋咸熙의 『詩話耐冷淡』권8，朱庭珍의 『筱園詩話』，張際亮의 『張亨甫文集』권1의 「答朱秦洲書」，張宗泰의 『魯巖所學集』권13의 「書潛研堂文集，甌北集後」들에서 엄우의 ‘학문과 관계가 없다 (非關學)’는 문장에 대해서 엄우의 ‘非關學’ 견해를 변호를 하고 있다. 嚴羽著，郭紹虞校釋 위 의책 p.35 참고.

18) 嚴羽著，郭紹虞校釋， 위 의책 p. 26.

詩는 책이나 이론의 관련여부를 떠나 ‘이치의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언어의 통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不涉理路、不落言筌者，上也.)’¹⁹⁾라고 한 엄우의 말은 시의 본질의 측면에서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해, 엄우는 당시 남송의 시들은 말의 구속에 빠져 있고, 송대의 시들은 이론의 길속에 갇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 盛唐의 시들을 높이 평가했다.²⁰⁾ 성당의 시는 흥취를 숭상하면서도 이치가 그 가운데 있고 이론의 길을 통하지 않아도 이치는 흥취를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했다. 시는 예술적 정취를 떠나 공허한 이론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최상의 시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고 당시 강서시파의 시들을 비롯하여 연사에 얽매이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識’과 ‘別材·別趣’를 통해 본 李白과 杜甫의 시

嚴羽는 사람들에게 ‘識’을 위주로 하면서 漢 魏 晉 과 盛唐의 시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것은 엄우가 그 시기의 시들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시를 짓는 사람은 이백과 두보의 시를 배우되, 당시 사람들이 경학을 공부하듯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의 극치는 한 가지가 있으니, 이를 入神이라고 한다. 시를 짓는데 入神의 경지에 이르면 최상에 이르고 다 갖추어져 보낼 것이 없게 된다. 오직 이백과 두보만이 이에 이르렀으며, 다른 이들 가운데 이를 체득한 경우는 대체로 드물다.

詩之極致有一，曰入神。詩而入神，至矣，盡矣，蔑以加矣！惟李、杜得之。他人得之蓋寡也。²¹⁾

엄우의 이 말은 李白과 杜甫의 시가 있어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시의 극치를 드러냈다는 말이다. 嚴羽는 이들의 시를 살펴야 바른 入神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이백과 두보의 ‘識’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보가 “만권의 책을 독파하고 붓을 드니 마치 신들린 듯하다.(讀書破萬卷，下筆如有神)”라고 말한 바와 같이 前代인들의 책을 통해서 시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는 入門단계이자 悟의 경지를 식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入神의 경지라고 칭한 이백과 두보의 시는 책으로 부터 시작되지만 수양을 통해 얻어진 내면적 체득이며, 이러한 체득은 자신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시어에 담아 표현할 수 있는 식견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당시 시단에서

19) 嚴羽著, 郭紹虞校釋, 앞의책 p. 26.

20) 엄우는 『창랑시화』 「시평」 편에서 “시에는 ‘언어’와 ‘이치’와 ‘의미’와 ‘흥’이 있다. 남조의 시인들은 말을 숭상했으나 이치에는 병폐가 있었다. 송대의 시인들은 이치를 숭상하지만 뜻과 흥에는 병폐가 있다. 당대의 시인들은 뜻과 흥을 숭상했지만 그 이치가 그 가운데 있었다. (詩有詞理意興，南朝人尙詞而病於理 本朝人尙理而病於意興 唐人尙意興而理在其中)”라고 평가하였다. 嚴羽著, 郭紹虞校釋, 앞의책 p. 148.

21) 嚴羽著, 郭紹虞校釋, 앞의책 p. 8.

는 많은 사람들이 두보 시를 중시하고 그의 시를 배우고자 했다. 당시 당시 강서시파를 이끈 黃庭堅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두보시의 묘처는 의식하지 않고 써낸 데 있다. 글을 씀에 있어 의식하지 않아도 깊은 뜻이 절로 이르게 되니 「國風」「大雅」「小雅」「頌」등으로 학문·사고 등을 넓히고, 「離騷」「九歌」 따위로 학문·사고 등을 깊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두보시의 깊은 의미를 감상할 수 있겠으며, 불쑥 그 문으로 들어 설 수 있겠는가?

子美詩妙處，乃在無意於文，夫無意而意已至，非廣之以國風，雅，頌，深之以離騷，九歌，安能詛嚼其意味，闖然入其門邪?²²⁾

위의 문장은 황정견의 『大雅堂記』가운데 나온 문장이다. 두보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興’과 ‘悟’를 갖춘 시를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단은 두보의 시를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전고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다른 이들의 시를 인용하고 전고에 의지한 진부한 문장들이 만연되어 있었다. 엄우는 옛것을 배우려는 당시 유행풍조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 옛것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禪의 개념을 결합하여 참된 식견을 언급을 했다. 다음은 전고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別材·別趣’를 나타내고 있는 이백의 「登蛾眉山」이다 .

蜀國多仙山 측 땅에는 신선세계의 산 같은 산이 많다지만
蛾眉邈難匹 아미산에 견줄 것 찾기 어려워라
周流試登覽 두루다니며 한번 올라 굽어보니
絕怪安可息 빼어나고 기괴함 어이 끝이 있으랴
靑冥倚天開 아득히 푸른 봉우리는 하늘 가에 펼쳐 있고
彩錯疑畫出 오색 찬란한 그 모습 그려낸 듯 하구나
泠然紫霞賞 사뭇한 자줏빛 노을을 만끽해 보자 하니
果得錦囊術 과연 비단 주머니 속 도술을 얻은 것 같구나²³⁾
雲間吟瓊簫 구름 사이에서 구슬 피리불어 보며
石上弄寶瑟 돌 위에서 보배로운 비파를 타 본네
平生有微尚 한 평생 바라는 작은 소망 있으니
歡笑自此畢 웃고 즐기는 것 이로써 족할 지라
煙容如在顏 은은한 표정 얼굴에 비치는 듯 하더니
塵累忽相失 속세의 얽매임을 털고 홀연히 떠나네
儼逢騎羊子 행여나 양 탄 이를 만나거들랑²⁴⁾
携手凌白日 손잡고 태양 위로 올라가리라²⁵⁾

22)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년, p. 306. 재인용.

23) 漢武帝가 선녀인 西王母와 上元夫人에게서 자줏빛 주머니에 싸인 『五眞圖』『靈光經』『六甲靈飛十二事』를 받았다고 한다.

24) 葛由는 주 선왕 때의 사람으로 나무를 깎아 양을 잘 만들었는데 하루는 나무 양을 타고 서쪽으로 간 뒤 그곳 왕후 귀인들과 수산으로 올라가 신선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25) 이병한 공저, 『중국시와 시인』, 사람과 책, 1998년, pp. 278-279 참고.

이 시는 이백이 20세 정도에 쓴 시이다. 그의 ‘登蛾眉山’은 높고 화려한 누대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성도의 장대한 정경을 묘사하면서 그의 浩然之氣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蜀 지방의 명승지로 이름난 蛾眉山에 올라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도 담아내고 있다.²⁶⁾ 『漢 武帝內傳』에 나오는 비단 주머니에 얹힌 고사와 『열선전』의 양을 탄 신선 葛由의 이야기 등을 자연스럽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백도 두보와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 識을 체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백은 제자서와 奇書등 다양한 책을 통해 습득된 지식을 시 속에서 표출하면서도 언어에 집착하지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詩情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의 창작이 엄우가 말하고자 하는 ‘識’과 ‘別材·別趣’라고 할 수 있다. 嚴羽의 識이라는 개념은 시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을 어떻게 스스로 체득할 것이며, 그의 別材·別趣는 체득한 지식으로 시의 본뜻을 알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識은 최상의 시를 지을 수 있는 깨달음의 입문처라 할 수 있고, 그 참된 식견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진실한 성정을 풀어낼 수 있는 시어를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이백과 두보 두 분은 우열을 논해서는 안 된다. 이백이 지닌 훌륭한 점은 두보가 표현해 내지 못하였고, 두보의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은 이백이 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두보는 이백이 지닌 표현하고 빼어난 풍격을 표현할 수 없고, 이백은 두보가 지닌 침착하고 침울한 풍격을 나타낼 수 없다.

李杜二公，正不當優劣，太白有一二妙處，子美不能道；子美有一二妙處，太白不能作。子美不能爲太白之飄逸，太白不能爲子美之沈鬱。²⁷⁾

위의 문장은 엄우가 「시평」에서 이백과 두보에 대해 평한 것이다.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각의 빼어난 풍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각각 별재와 별취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별재와 별취는 시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시어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과 별도의 흥취의 절묘함은 그들의 시를 숭상하게 만들었다. 이백은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표현하고 자신의 독특한 흥취와 정서를 지니면서 그의 낭만적이면서 강렬한 감정들을 시어에 담아냈고, 두보는 시를 통해 현실 문제라든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로 표현했다. “사람들이 놀랄만한 시어가 아니면 죽는다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語不驚人死不休)”²⁸⁾라고 하면서 시어의 개성적인 표현에 노력하였다²⁹⁾.

두보는 자신의 내면에 쌓여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어의 구사를 하는 특별한 흥취와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가 시 속에서 ‘言外之意’를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세련미가 있다. 다음은 그의 시 「月夜」이다.

26) 이병한 공저, 위의책 p. 279 참고.

27) 嚴羽著, 郭紹虞校釋, 앞의책, p.시평 22.

28) 정양 역시, 박완식 국역, 『두보시의 이해』, 이회출판사 1996년. p.44. 두보,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29)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2004년, p.238 참고.

今夜鄜州月 오늘밤 부주 하늘의 저 달을
 閨中只獨看 아내는 규중에서 홀로 보고 있겠지
 遙隣小兒女 멀리 있는 어린 아들 딸들이 가없으니
 未解憶長安 아직 장안을 그릴 줄도 모르리라
 香霧雲鬢濕 향기로운 안개는 구름 같은 머리에 젖어들고
 淸輝玉臂寒 맑은 달빛은 옥 같은 팔에 비치고 있으리라
 何時倚虛幌 어느 때면 고요히 장막에 기대어
 雙照淚痕乾 둘이 서로 바라보며 눈물 자국을 말리게 될까?³⁰⁾

두보의 「月夜」는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현실이라는 사이에서 의경을 표현한 시이다. 두보가 안록산 난으로 반란군에게 장안이 점령되었을 때 鄜州에 가족을 두고 천자가 있는 곳으로 가던 중 가족과 소식이 두절되고 반란군에게 잡혀 장안으로 끌려가게 된다.³¹⁾ 그가 장안에서 달을 바라보며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자기처럼 달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두보의 정감이 표출되어 있는 시이다. 두보는 이 시에서 근심에 차 쓸쓸히 달을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기라도 한 듯 그림처럼 詩 속에 묘사하고 있다. “어느 때면 고요히 장막에 기대어 둘이 서로 바라보며 눈물 자국을 말리게 될까?(何時倚虛幌 雙照淚痕乾)”라는 구절은 상상 속 환영에서 현실로 돌아와,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³²⁾ ‘시에는 별도의 흥취가 있으니 이치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엄우의 주장처럼 이 시에서 두보의 침울하면서도 그리움이 묻어나는 시어들은 영양이 뿔을 나무에 걸은 것처럼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절묘함이 있다고 하겠다. 그의 시에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이치를 시어로 표현해 내면서 이치 보다 훨씬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別趣를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好雨知時節 만가운 비가 때 맞추어 내리니
 當春內發生 봄을 타고 이제 만물 싹트리라
 隨風潛入夜 봄비는 바람 따라 밤에 스며들어
 潤物細無聲 소리 없이 만물을 촉촉이 적셔 준다
 野徑雲俱黑 들길은 구름이 덮여 어둡기만 하거늘
 江船火獨明 강가의 배 호롱불만이 밝게 비치네
 曉看紅濕處 새벽 촉촉이 붉게 물든 그 곳
 花重錦官城 금관성에 꽃 송이가 무겁게 처져 있다.³³⁾

이 시는 두보의 「春夜喜雨」로 상원2년(761년)에 성도에서 지은 시이다. 오랜 고생 끝에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심정을 묘사한 것으로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봄비는 바

30) 邱變友 註譯, 『新譯 唐詩三白首』, 三民書局, 1999년 p. 191.

31) 장기근 역저, 『두보』, 석필출판사, 2006년 p.105 참고.

32) 吳戰壘著, 유병래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년, pp. 96-97 참고.

33) 장기근 역저 『두보』 석필출판사, 2006년, p.50.

람 따라 밤에 스며들어 소리 없이 만물을 축축이 적서 준다.(隨風潛入夜 潤物細無聲)”라는 구절은 어둠을 타고 소리 없이 만물에 스며들어 싹과 삶을 자라게 하는 자연의 고마움을 봄비를 통해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³⁴⁾ 그리고 이 구절은 백성을 잊지 않는 시인의 救世의 정신 또한 느낄 수 있으며 백성을 어질게 하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의 고상한 인격을 볼 수 있다. 두보는 作詩를 함에 있어서 참된 식견으로 시어를 선택하고 그 시어들을 다듬어 사용하여 시의 풍격을 높이고 있다. 시의 행간 속에서 느껴지는 別趣는 참된 식견으로 시의 묘미를 깨달아야 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경지라 할 수 있다. 그는 봄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흥취를 담아내어 말로 표현하는 이치 보다 훨씬 풍부한 깊이를 느끼게 한다.

이백의 독특한 흥취와 정서는 古風 樂府 歌行 七言絶句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표현하고 있어 그의 표일한 개성을 볼 수 있다. 시란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이백은 자아 표현을 중시하며, 낭만주적이면서도 기상이 있어 그의 시들을 보면 자유스럽지만 정교함이 함께 나타남을 인지할 수 있다.³⁵⁾ 특히 그는 전통적 기교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통해 그의 식견을 넓혔다. 그런 후에 그의 특별한 재능과 천재적인 감각으로 그의 기발한 착상이나 과장된 표현, 선명한 색채와 명암 묘사, 생동감 있는 동작 묘사, 참신한 비유 등 형상성이 뛰어난 표현으로 시의 별취를 느끼게 한다. 이런 그의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흥취는 자유롭고 호방한 성격과, 어릴 때부터 쌓아온 광범위한 독서, 끝없는 방랑 여정과 굴곡진 생애 체험, 그리고 성당 시대의 격동적인 정치 사회 환경이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엄우가 말한 ‘식’을 책과 체험으로 체득하고 내면의 별재와 별취로 표출하여 그의 자유로운 시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다음은 이백의 「東山吟」이다.

携妓東土山	기생을 끌고 동쪽 흙산에서 노닐자니
悵然悲謝安	사안이 몹시도 가여워지누나
我妓今朝如花月	내 기생은 오늘 아침 꽃님 달님 같은데
他妓古墳荒草寒	저 기생 무덤에는 잡초만이 썰렁하다.
白難夢後三百歲	흰 닭 꿈 꾸 후 삼백년 지났으니 ³⁶⁾
灑酒澆君同所懽	그대에게 술 뿌리며 함께 즐겨 보노라
酣來自作青海舞	거나해지면 제멋대로 청해 무도 추어보니
秋風吹落紫綺冠	가을바람은 자줏빛 관을 불어 떨어 뜨리누나

34) 장기근 역자, 위의책 p.50 참고.

35) 강창구는 「이백과 왕창령의 칠언절구시 비교」 대불대학교 논문집 제5집 1999. p. 204.에서 이백의 칠언절구에 대해서 ‘七言絶句는 歌行, 樂府로부터 와서 가사에 곡을 붙여 가락에 맞추어 노래한 것으로 언어는 반드시 자연스럽고 명쾌해야 한다. ...이백의 칠언절구는 민가식의 자연의 소리에 가까우며 무의식적으로 정교하게 한 것 같다.’고 했다.

36) 謝安은 병을 앓던 중 하루는 이미 세상을 이미 떠난 桓溫의 수레를 타고 십 육리를 가서 흰 닭을 보는 꿈을 꾸었다. 그는 일어나 친구에게 말하기를 “환온의 수레를 탄 것은 그의 뒤를 따른다는 뜻이요, 십 육리를 간 것은 그의 죽음으로부터 십 육년이 지났다는 뜻이며, 흰 닭을 본 것은 올해가 닭의 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내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벼슬을 내놓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흰 닭 꿈을 꾸 후라는 것은 사안이 세상을 떠난 후라는 의미이다. 이병한 공저, 앞의책 p. 282.

彼亦一時 그 또한 한 때요
 此亦一時 나도 또한 한 때인 것을
 浩浩洪流之詠何必奇 출렁 출렁 흐르는 물을 읊조림이 기일할 게 무어런가³⁷⁾

이 시는 남조 때 뛰어난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謝安이 노닐던 곳에 들러 그 감회를 표현한 작품으로 흥이 나는 대로 장단을 맞춘 시로 4,5,7,9언의 자유로운 리듬이 한데 어울려 특유의 호탕함을 보이고 있다. 고금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망하면서 기생의 손을 잡고 술과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자신의 처지는 그 누구의 것보다도 견줄 수 없다고 호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백은 흔히 천재라고 하여 많은 논평에서 이백을 따르려면 단순한 노력만으로 불가능하고 그 위에 타고난 재능을 겸비해야 한다고 한다. 위의 시 「동산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개와 시어의 구사를 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사안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즉흥적인 감흥과 잘 어울려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즉흥적으로 밀려오는 감흥을 천재적인 재능만으로 구사하고 있는 듯 하지만, 謝安에 대한 고사를 인용하면서도 자구의 길이를 다르게 표현하여 장단을 넣어 표현하는 점만 보더라도 시어 하나하나를 잘 다듬는 수고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임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그가 시를 짓는데 있어서 그는 천재적인 재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시어를 선별할 수 있는 ‘식견’과 노력이 그의 특별한 재능과 흥취를 빛나게 한 것이다. 다음은 그의 「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雲」이다.

棄我去者昨日之日不可留	날 버리고 가버리는 어제라는 날 이를 잡아 둘 수는 없고
亂我心者今日之日多煩憂	내 마음 어지럽히게 하는 오늘이라는 날 번민과 시름 많네
長風萬里送秋雁	긴 바람 만리에 가을 기러기 전송하니
對此可以酣高樓	이를 대하여 고루에서 취해 시름 잊어버리세
蓬萊文章建安骨	봉래의 문장은 건안의 풍골인데
中間小謝又清發	그 사이 사조가 있어 맑은 시풍 발휘했네
俱懷逸興壯思飛	모두들 준일하고 장중한 기상을 품고서 날아
欲上青天覽明月	청전에 올라 명월을 구경하고 싶다.
抽刀斷水水更流	칼 뽑아 물 끊어 치니 물 더욱 흘러가고
舉杯銷愁愁更愁	잔 들어 수심 씻으니 수심 더욱 짙구나
人生在世不稱意	인생 속세간에 뜻대로 안되니
明朝散髮弄扁舟	맑은 물살에 머리 흩으며 쪽배나 희롱하세 ³⁸⁾

「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雲」은 謝朓가 宣城太守로 있을 때 세운 누각에서 벗을 보내며 지은 시이다. 긴 호흡으로 시작한 이 시는 강건한 기魄이 자구마다 응축되어 있어 만리를 휘몰아치는 듯 밀고나가는 기상을 볼 수 있다.³⁹⁾ 또한 묘사한 시어들

37) 謝安은 환공이 병사를 잠복시키고 그를 없애려 하였는데도 태연하게 ‘浩浩洪流(너르고 너른 큰 물결이어)’라는 시를 읊조렸다. 환공은 그 호탕한 됃됨이에 놀라 병사들을 해체 시켰다. 이병한 공저, 앞의책 p. 283.

38) 권영한 편역, 『이백시선집』, 진원문화사, 2002년. p. 88.

은 평범한 사람의 性情을 뛰어넘는 이백의 鍊字 묘법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응축된 자구에서 그의 고원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⁴⁰⁾

엄우가 말한 識는 이백과 두보의 시에서 보여 주듯이 진실한 성정을 담아낼 수 있는 시어를 선별할 수 있는 식견으로, 식견에 대한 인식은 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최상의 시를 배울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식을 통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詩 속에서 보여주는 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시정을 바로 볼 수 있어서 그들의 별재와 별취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대의 시인들이 드러내는 별재와 별취를 체득해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우러난 진솔한 감정을 흥취에 따라 풀어내야 엄우가 말한 妙悟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嚴羽의 『滄浪詩話』 가운데 「詩辨」은 그의 詩觀을 정연하게 정리한 원론부분이다. 그 중에서 그가 作詩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하는 ‘識’과 ‘別材·別趣’를 정리하면서 이백과 두보의 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嚴羽의 『滄浪詩話』는 중국시화 비평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이 책을 저술한 의도는 당시 강서시파의 영향아래 典故와 修辭에 얽매어 시의 본질을 도외시했던 문인들의 경향 즉 “산문으로 시를 짓고, 재능과 학식으로 시를 짓고, 의논으로 시를 짓는(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 以議論爲詩)”것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詩辨」에서 嚴羽는 ‘識’과 ‘別材·別趣’를 강조한다. 이 주장은 당시 시단에서 언급되어지는 화두들을 그가 새롭게 체계화시킨 주장이며, 禪과 문학을 결합하여 그의 주장들을 구체화 하였다. 따라서 엄우의 ‘識’과 ‘別材·別趣’설은 송시의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물이면서 그만의 특별한 재능과 별도의 흥취를 드러낸 견해일 것이다.

그는 盛唐의 시를 第一義에 놓았고, 이백과 두보를 入神의 경지에 도달한 시인으로 높였다. 엄우는 「詩評」과 「考證」에서도 이백과 두보를 분석하며 그들의 ‘識’과 ‘別才·別趣’를 밝히고자 했다. 그는 이백과 두보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각각의 뛰어난 점이 있는데 특히 그들이 作詩에 있어서 이백의 표일함, 두보의 침울함 등은 서로 해낼 수 없는 경지라고 언급하였다.

엄우는 배움은 위에서 아래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문인들이 경학을 공부하듯 이백과 두보의 시들을 공부해야한다고 했다. 이백과 두보의 시에서 보이는 ‘識’

39) 이원섭역해, 『이백시선』, 현암사, 2003년, p.184 참고.

40) 류성준, 『중국성당 시론』, 푸른 사상, 2003년, p.165 참고.

과 ‘別才·別趣’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識’은 식견으로 학문을 통해 시의 본질을 깨달음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식견으로 前代인들의 시어 속에 들어 있는 흥취를 체득하는 것을 ‘別才·別趣’라 말하는 것이다. 그의 ‘識’과 ‘別才·別趣’는 내면에 쌓여 있는 학문이나 이치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작자의 진실한 性情을 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言外之意’의 절묘한 경지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5. 참고 문헌

- 강창주, 「송대반강서시파의 시론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년.
 강창구 이백과 왕창령의 칠언절구시 비교」 대불대학교 논문집 제5집 1999년.
 곽소우 교석, 김해명 이우정 옮김, 『창랑시화』 2001년.
 권영한 편역, 『이백시선집』, 전원문화사, 2002년.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2004년.
 김학주 역저, 『당시선』, 명문당, 2003년.
 류성준, 『중국 시화의 이해』, 현학사, 2006년.
 류성준, 『중국성당 시론』, 푸른 사상, 2003년.
 배규범, 『역주 창랑시화』, 다운샘, 1997년.
 吳戰壘저, 유병례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년.
 유복실 엄우의 시선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년.
 윤상림, 「문학론과 선사상」, 동양고전연구 제 4집 1995년.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년.
 이병한 공저 『중국시와 시인』 사람과 책 1998년.
 장기근 역저, 『두보』, 석필출판사, 2006년.
 정양역, 박완식 국역, 『두보시의 이해』, 이회출판사, 1996년.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년.
 何文煥, 『歷代詩話』 중화서국 2004년.
 邱燮友 註譯, 『新譯 唐詩三白首』, 三民書局, 1999년.
 엄우 저 곽소우 교석 『창랑시화 교석』 인민문화 출판사 2006년 .
 『論語』 學而 편

A Study on 'Sik (識)' and 'Byeol Jae · Byeol Chwi (別材·別趣)' of
『Chang Rang Si Hwa (滄浪詩話)』

Kim Sun Hee

『Chang Rang Si Hwa (滄浪詩話)』 : *an essay on poetry composed by Um Woo (嚴羽) in end of the Song Dynasty made a huge repercussion in the history of poetics in China. Through the work, Um Woo intended to reflect and criticize the literary men's trends of those days; which were ignoring the nature of poetry being bound by Jeong Go (典故) : an authentic precedent and Su Sa (修辭) : a figure of speech.*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poems created by Lee Baek (李白) and Du Bo (杜甫) in consideration of 'Sik (識)' and 'Byeol Jae · Byeol Chwi (別材·別趣)': *knowledge or understanding and special quality · special style, respectively, of which concepts Um Woo presented in 『Chang Rang Si Hwa (滄浪詩話)』 · 『Si Byeon (詩辨)』. What Um Woo presented in the section of 『Si Byeon (詩辨)』 can be summarized to two opinions. First, he told that the nature of gusto of poetry was 'Si Do Jae Myo Oh (詩道在妙悟)' : *the principles of writing a poem lie in being enlighten, and embodied it as 'I Seon Yu Si (以禪喻詩)': learning poetry through Zen, in which Zen (禪) and literature were inter-related. Second, he insisted the state of being enlighten (妙悟) about creating poetry (詩作) could be learned though the methods of 'Sik (識)' and 'Byeol Jae · Byeol Chwi (別材·別趣)' and worshipped Seong Dang Si (盛唐詩) : a style of poetry creation in Tang period.**

He considered Li Baek and Du Bo among High-Tang Poets as those poets who had perfectly mastered creating poetry. Um Woo tried to explain the nature of poetry by analyzing both Li Baek and Dubo, and insisted that their poems should be studied as then people learned Confucian classics in the sections of 『Si Pyeong (詩評)』 and 『Go Jeung (考證)』: *poetry review and historical research, respectively.*

Criticizing the study trend to focus on, simply, the words and phrases (字句) and authentic precedents (典故),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ppreciating the nature of poetry by presenting the concepts of 'Sik (識)' and 'Byeol Jae · Byeol Chui (別材·別趣)' in the

poems of Li Baek and Du Bo. He lay stress on the importance of acquiring the nature of poetry by accumulating one's abilities to discern and judge, and, eventually, intended to explain the superb state of 'Oen Wae Ji Ui (言外之意)' : *meanings which lie beyond what's been told*, through which a poet could naturally express in his poems without being bound by the knowledge existing inside of the poet.

Key-words : 『Chang Rang Si Hwa (滄浪詩話)』, 『Si Byeon (詩辨)』, 『I Seon Yu Si (以禪喻詩)』, 『Sik (識)』, 『Byeol Jae · Byeol Chwi (別材·別趣)』, Lee Baek (李白) and Du Bo (杜甫)